

함글함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83

2017. 9. 10

2017년 주님의교회 표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레 19:2, 롬 1:17)

오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요한복음 1:1

오늘의 주요기사

- 2 종교개혁 이야기, 더 바이블
- 3 목회칼럼
- 4 교회 단신

교회 일정

9/10 (주일)	정기당회
9월-10월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
9/16 (토)	15사단 진중세례식
9/17-10/15	입교세례교육기간
9/24 (주일)	소망교도소 찬양사역
10/2-7	베트남선교
10/15(주일)	보훈병원 찬양사역

발행인 : 김성식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글함글팀

주님의교회



정신학원 개교 130주년 무용제, 음악회가 8월 31일, 9월 1일 양일간 열렸다. 1887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애니 엘러스가 설립한 정신학원은 오는 10월 20일 130주년을 맞는다. 주님의교회는 1995년 정신여고와 인연을 맺은 후 예배당 무소유와 재정의 50% 선교에 사용하는 창립 정신을 바탕으로 1998년 정신학원에 강당을 지어 기증하고, 이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한 식구가 되었다.

새 담임목사 청빙, 마무리 단계 이르러 9월 중 최종 후보자 선정 예정

전임 제 4대 박원호 목사에 이은 제 5대 담임목사 청빙 과정이 순항중이다.

지난 9월 3일 예배시간에, 청빙위원회 위원장인 장일형 장로가 그간의 청빙 과정을 간추려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청빙 과정은 그동안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2016년 4월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청빙위원회의 위원은 시무장으로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고문은 은퇴장로 1명이 맡았다. 실무위원으로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 각각 1명이 참여, 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부터 미션 스테디 과정을 갖고, 지금까지 교회가 걸어온 길을 점검하고, 교회의 장단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으며, 향후 교회의 미래상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담임목사상을 도출했다.

신임 담임목사의 청빙은 공모와 추천을 병행하기로 하고, 2016년 12월 교회 홈페이지와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보>, 교회 선교지인 <함글함>, 교회 주보 등에 청빙공고를 게재하여 청빙을 공개적으로 공지했다.

2017년 1월 말, 응모를 마감한 결과, 공모 30명, 교인 추천 2명 등 총

32명의 후보자가 응모했다. 청빙위원회에서는 이 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까닭은, 현재 재임 중인 교회와 성도에 게 흑시라도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월부터 4월까지 심사를 거친 결과, 서류 심사에서 11명을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교 동영상 및 현지 방문을 통한 선정과정을 통해 3명을 선정했다.

5월부터는 기존 선정한 후보 외에, 다양한 교회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의 외연을 넓히고 출신을 좀 더 다변화하기 위하여 추가 후보군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검토는 주님의교회 출신 역대 부목사 가운데 청빙 조건에 합당한 분, 현재 타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분들 뿐 아니라 학계에서 신학 연구에 매진하는 분, 타 교회에 재임하지만 역량이 있는 부목사급의 목회자 등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청빙위원회에서 2명의 목회자를 후보군에 추가했다. 한편, 공모 후보 3명 중 2명을 최종으로 선정하고, 청빙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4명을 대상으로, 8월 중에 청빙위원회의 심층 면접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전에 준

비된 수십 문항의 질문을 청빙위원회 위원들이 분야별로 나누어 인터뷰한 결과, 최종 3인으로 압축했다.

장일형 청빙위원회 위원장은 이후 일정에 대하여, 9월 9일 최종 3인에 대한 교회공동체대표자회의에서 최종 1인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회공동체대표는 시무장로, 은퇴장로, 남선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등 교회의 각 기관과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교인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9월 9일 선정된 최종 후보 1인은 9월 10일 당회 의결을 거쳐 최종 청빙 대상자로 결정되며, 이후 9월 중 전 교인의 찬반 투표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된 이후에도 교회와 담임목사 후보자 간의 계약 절차가 9월 하순에 진행되며, 이 계약 후 후보자가 현재 다른 교회에 재임하고 있을 때는 해당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사퇴하는 과정과 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후 교회에 부임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일형 청빙위원회장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청빙 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주님이 뜻하신 종이 주님의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전 교인의 한 몸 된 기도를 요청했다.

함글함글

종교개혁 이야기 9

츠빙글리의 성경과 소시지

루터의 종교개혁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신학적인 질문에서 출발했다면, 츠빙글리는 훨씬 더 피부에 와 닿는 고민들을 하였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로운 교회와 사회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그의 신학적 밑거름이 되었고, 츠빙글리 신학은 다른 종교개혁자들보다 사회윤리적 성향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가 결코 분리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이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와 세상을 철저히 개혁하는 사명자로 존재해야함을 역설하였다.

지난 호에 잠시 언급하였지만 츠빙글리는 연속적 강해설교를 통해 말씀의 권위를 무겁게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교개혁의 모든 신학

적 근거를 성경에서 가지고 왔기에 ‘성경은 츠빙글리 종교개혁의 심장’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또, 츠빙글리는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예언모임(Prophezei)’을 만들었다. 이는 예언(豫言)이 아닌 예언(預言), 즉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말씀대로 전달하기 위한 말씀연구모임이었고, 이 모임을 통해 1531년 신구약성경의 독일어 번역을 완성하였고, 후에 취리히 성경으로 출판되었다.

이러한 츠빙글리의 삶을 상징하는 츠빙글리 동상이 취리히 바서 교회(Wasser는 독일어로 ‘물’이고, 아름다운 취리히 호수 옆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에 있다. 그런데 그 동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왼손에는 칼이, 오른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다. 이는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상징물으로써, 교회(성경)와 국가(칼)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을 든 손이 좀 더 위에 있음으로 성경이 이 모든 것

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츠빙글리하면 유명한 것이 바로 ‘사순절 소시지 사건’이다. 사순절은 모두가 다 알다시피 금육과 절제의 기간이다. (카니발(Carnival)의 유래 역시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육식을 금하고 육정을 절제하는 사순절에 들어가기 전에 온갖 음식과 욕망으로 마지막 향락을 누리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사순절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소시지를 먹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사소한 일로 치부하며 넘어갈지 모르는 일이지만 당대엔 크나큰 종교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때 츠빙글리는 자신이 사순절 금식규례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육식을 금하는 것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무엇이든 먹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지지하는 설교를 하였다. 이것이 가톨릭과의 논쟁으로 이어



츠빙글리의 취리히 성경

져 츠빙글리는 1523년 자신의 주장을 67개 조항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후에 그 해설본까지 출판하여 종교개혁을 본격화하였다. 이는 성서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대비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추구와 사람(사물)을 통한 구원추구의 대비를 통해 주장되었다. 그의 67개 조항은 교회적이며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개혁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었고, 면죄부 하나만을 주제로 다룬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박주영 전도사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 더 바이블 (The Bible) 6

4.성경은 어떻게 접근하고 읽어야 하는가?

성경은 어떻게 접근하고 읽어야 하는가? 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지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이스라엘과 주변나라의 관계

이스라엘은 그 지리적 위치에서 살펴볼 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나라들과 매우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현재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나라사이에서 맺어진 외교적, 경제적 문제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역사이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이방나그네에 불과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여러 부족국가(헷,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가나안, 브리스 등)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에돔

과 모압, 암몬, 서쪽은 블레셋이 있었다. 성경은 이들과 다른 종교, 문화, 사상 가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유일신을 섬기는지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성경에서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치른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9세기 아람과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의 경제적, 외교적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던 북이스라엘은 8세기에 이르러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한다. 앗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후 남 유다에게 끊임없는 위협과 조공을 받치도록 했다. 결국 남유다는 7세기 말 바벨론 침략과 포로로 끌려가면서 직접적인 바벨론 속국으로 전락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의 큰 틀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나 예레미

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위기 때마다 끊임없이 북쪽의 앗수르, 바벨론, 남쪽의 애굽을 오고 가며 줄타기 정치적 외교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들의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결국 이 두 나라의 외교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방나라를 의지하는 외교정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주변나라들과 외교적 마찰 속에서도 정치, 종교, 문화를 수용했다.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가나안의 농경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사실 이스라엘은 신분이 대체적으로 낮은 유목민이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사회로 변화를 시도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농경을 주관한

다고 믿었던 풍요와 다산, 그리고 천체를 주관하는 바알 종교를 수용해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훼도 함께 섬겼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에 널리 퍼져 있던 페니키아의 다산의 신인 아세라도 숭배한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경제적, 외교적 안정 속에서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과 밀곰, 시돈의 아스다롯, 앗수르의 식굿과 기윤, 바벨론의 담무스와 벨과 느보와 같은 종교를 함께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종교 수용은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촉구한다. 그리고 정체성 확립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다. **이은석 목사**

목회칼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족문제의 치유 그리고 예방과 성장

클레멘트 스톤은 말하기를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성이 바뀐다.”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면 그 후에는 영생(靈生)이 바뀐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예방과 이를 통한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가족은 시스템으로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변화만으로도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다른 구성원을 통해 똑같은 방식으로 재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안의 문제는 예방이 필수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예방은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미리 대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예방주의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예방이라는 그 뜻의 분명한 의도

를 알 수 있다.

예방주의란 ‘형벌의 목적이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는 주장’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형벌의 목적이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것이다. 예방은 추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목적인 것이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에 따르면 정

손상, 생화학 물질의 이상, 병원균의 침입등)에 의한 결함이나 손상에 의해 생기는 일종의 질병과 같이 보았다. 따라서 이것을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신장애 및 심리적 문제의 치료 역시 증상제거를 넘어서 재발방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이 시스템

고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보다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부적응적 증상의 제거뿐만이 아니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과 성장의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장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것’으로 생물학적인 의미를 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성장은 생물학적 의미를 뛰어 넘어 정서와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성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장은 매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안의 심리적 문제나 기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치료와 예방은 단지 자신의 가족 문제만을 해결하고 자신의 가족 행복만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성도된 가족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의 성장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본을 보임과 적극적 참여, 중보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홍성욱 목사

성도된 가족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의 성장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본을 보임과 적극적 참여, 중보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건강의 질병모델 또는 의료 모델은 심리적 문제가 신체적 질병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고 가정한다. 즉 심리적 문제도 어떤 물질적 실제(뇌의

이라는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현대 이상심리학에서 치료는 증상으로부터의 회복보다 재발의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나

정신학원에 갇힌 한국 기독교의 역사 46

해방 후 복교(4)



1948년 1학년 신입생들

1947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하여 5월 20일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1학년 100명, 2학년 34명 합 134명이었다.

그리고 7월 12일 정부로부터 재인가(再認可) 승인되었다.

답을 쌓기 위해 30만원 공사비 중 동창들이 분분히 모아 20만원을 기

부했고, 김규식 박사의 부인인 3회 졸업생 김순애가 10만원을 기부했다. (김순애는 김필례의 언니로 조카인 김마리아와 함께 일제 하 우리나라 여성독립운동을 이끈 분이 다.) 그러나 학생들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워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때마다 김순애가 도움을 주었다.

1948년에 학생이 450명으로, 4학년이 완성된 1949년에는 750명으로 늘어나 학교의 경영난이 안정을 찾게 되었다. 1950년 5월에는 대강당(신마리아관) 준공을 했다. 공사비는 미북장로회 선교부 및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했다. 겐소 교장, 천미례(Lillian Dean Miller)¹⁾ 선생, 이아주 동문²⁾ 그리고 동문회가 기부하였다.

교가는 정신여학교에서 음악 강

사로 근무하던 박목월이 곡을 써서 만들었고, “굳건한 믿음, 고결한 인격, 희생적 봉사”의 교훈은 1952년 부산 피난학교시절 제정한 것이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1) 1919년 10월 19일 천미례 선교사 사택에서 대한민국애국부인회가 조직되었다. 미국과 일본 간의 가쓰라-데프트 조약으로 미국이 조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한을 일본에게 넘긴 후 자국 선교사들에게도 조선인의 항일 운동에 참가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천미례 선교사는 정신여학교 졸업생이 주축이 된 일제하 최대의 여성항일 단체의 출범과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 후일 김성수 부인으로 3·1운동 당시 경찰에 검거, 수감생활을 하게 되어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교회 단신

나라와 교회를 위한 전교인 특별연합기도회



8월 25일, 대예배실에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주관으로 300여명의 교우들이 참여하여 전교인 특별 연합 금요일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주관부서 화장단에서 준비한 특송을 듣고, 남선교회 담당 정창화 목사가 설교를 했으며, 나라를 위한 기도와 주님의교회 발전을 위한 기도가 문희삼 목사와 이은석 목사의 인도로 드려졌다.

이번 특별 기도회는 9개의 주제로 각부서 회장단의 대표기도로 시국에 대한 기도(특히 북한지도자와 핵폐기)와 법과 원칙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기도와 정신학원과의 화합과 학원 선교 공동체 형성을 위해 기도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주님의교회 환우들을 위한 기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함즐함울

수련회 후기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를 마치고



무더운 여름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고 입추를 지나 8월27일 주일 오후에 7교구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를 가졌다.

7교구는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를 준비하며 특별히 항존직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백명 정도 모인 수련회는 마치 작은 교회 같았다. 구역 공동체가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인사도 나누고 새로 임직한 안수집사와 권사들도 인사를 드려 교제와 사랑을 나누었고 예배와 찬양 또한 성령이 충만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아와 해외이주 여성을 위해 헌신으로 사역하는 민들레교회 김영준 목사의 명화들이 말해 주는 성경이야기와 화가가 그린 그림에 대한 성경적 해석과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기독교적 배경에 대한 강의는 새롭고 특별하였다.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세상에서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참사랑과 선을 전해야함을 일깨워 주었다.

준비한 간식과 저녁식사를 함께한 시간은 가족과 같았고 7교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케하는 축복된 시간이었다. 함께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7교구 네 분의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박동선 권사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월~금)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함즐함울 캠페인

“불편”도 “전도”입니다

주님의교회는 정신학원 안에 있습니다. 정신학원의 주인은 선생님과 학생들입니다. 주님의교회는 청소년 사역을 꼭 해야 할 일로 정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학원의 여러분을 섬기는 일은 주님의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는 또한 이웃을 가족처럼 섬겨야 합니다. 이웃에게 끼치는 좋은 인상은 가장 좋은 전도의 한 방법입니다. 교회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이고, 이웃들이 가까이 교회가 있음을 고맙게 생각할 때, 그이들도 은혜와 위로를 받으려 교회에 올 것입니다. 학원과 이웃을 섬기는 일은 이처럼 작지만 단순한 데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웃인 학원과 이웃을 소홀히 하거나, 더 나아가 그이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 일을 이유로 주차를 함부로 하여 학생이나 아파트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는 작은 “불편”이 이웃에게 좋은 “전도”가 됩니다.

함즐함울에 원고를 보내시는 아주 간단한 방법!

주님의교회 신문 <함즐함울>에 기사, 수상, 간증 등의 원고를 게재하고자 하실 때에는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즐함울 편집 지침(주님의교회 규정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과 지면 사정에 따라 편집 회의를 거쳐 게재해 드립니다.

함즐함울

알립니다

1. 기도어머니 사랑어머니 모임

일시 : 9월 14일(목) 오전 10:30 찬양연습실(5층)

문의 : 정승아 권사(010.2416.4538)

2. 살롬찬양대(주일 3부 예배) 대원 모집

모집 부문 : 각 파트 약간 명

연습 시간 : 주일 오전 10:00~11:00, 오후 1:20~3:00

문의 : 총무 장관수 집사(010.4816.3140)

3. 주방부(1부) 봉사자 모집

시간 : 주일 오전 5:30~8:30(시간조정가능)

문의 : 강대수 안수집사(010.9612.7980)

4. 신병 진중 세례식(15사단 신병교육대)

일시 : 9월 16일(토) 교회출발 오전 7:40 강원 화천군 상서면

문의 : 이성훈 안수집사(010.8949.1479)

5. 제6여전도회(66년 이후) 하남 소망의집 주방 봉사

일시 : 9월 11일(월) 오전 9:30 교회 출발

문의 : 이주영 집사(010.9969.1836)

6. 뮤직아카데미 2017 하반기 모집

개설과목 : 베이스기타, 드럼, 건반, 기타, 양상블

등록기간 : 9월 23일(토)까지

수업기간 : 9월 24일 - 2018년 1월 6일 (16주)

문의 : 정경화(010.7768.0355)

7. 하나원(안성) 주일예배를 함께하실 성도

일시 : 9월 17일(주일) 오전 7:10 교회출발

문의 : 천정희 집사(010.7584.4382)